LG하우시스, 고급 인조대리석 출시

LG하우시스(대표 한명호)가 프리미엄 인조대리석 <마르모> 브랜드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마르모는 차별화된 패턴과 풍부한 색감이 특징으로 그동안 인조대리석의 한계로 여겨졌던 천연대리석 패턴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연속성 있는 무늬를 구현해 이음매 부분의 단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주방 상판을 비롯해 욕실 세면대, 선반, 벽체, 카운터 등 다양한 주거용, 상업용 공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LG하우시스 표면소재사업 담당 황진형 상무는“ 마르모는 디자인과 재질이 한 단계 진화한 프리미엄 인조대리석이며, 앞으로도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1995년 인조대리석을 생산한 이후 2003년 프리미엄 인조대리석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볼케닉스>를 출시했다.
2010년에는 iF디자인상과 레드닷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인조대리석 시장의 고급화를 주도해왔다.

<화학저널 2010/7/19>